

Governance

ESG 경영에 있어서 G(거버넌스)는 ESG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자 기본입니다. 견고한 기업지배구조 구축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에 부합하는 선진 지배 구조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4.1	이사회 책임 경영
4.2	주주 친화 경영
4.3	윤리·준법 경영
4.4	리스크 경영
4.5	조세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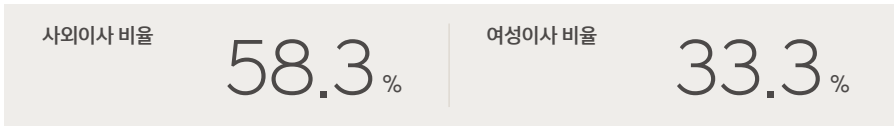
이사회 책임 경영

현대자동차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이사회 다양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더 나은 거버넌스 체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책임 경영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현황

현대자동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7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 회계, 금융, 법률, 미래·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사의 임기

2025년 3월 말 기준, 이사회 총 12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2.8년이며, 한국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에 선임된 이사는 사내이사 2명(재선임 1명, 신규선임 1명), 사외이사 3명(신규선임 3명)입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 2025년 3월 말 기준

구분	성명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성별	국적
사내이사	정의선 ¹⁾	대표이사·회장	現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2010.03.12	남성	대한민국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사장	現 현대자동차 담당사장		2023.03.23	남성	미국·스페인
	이동석	대표이사·사장	現 현대자동차 국내생산담당,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2022.03.24	남성	대한민국
	이승조	사내이사·부사장	現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장		2024.03.21	남성	대한민국
	진은숙	사내이사·부사장	現 현대자동차 ICT담당		2025.03.20	여성	대한민국
사외이사	심달훈	사외이사	現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03.24	남성	대한민국
	이지운	사외이사	現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前 미 항법학회 이사	2021.03.24	여성	대한민국
	장승화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2023.03.23	남성	대한민국
	최윤희	사외이사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23.03.23	여성	대한민국
	김수이	사외이사	前 CPPIB 글로벌 PE부문 대표		2025.03.20	여성	대한민국
	도진명	사외이사	現 케어메디 기타비상무이사	前 쉐컴 아시아 부회장	2025.03.20	남성	미국
	벤자민 탄	사외이사	前 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2025.03.20	남성	싱가포르

1) 이사회 의장

이사회 선임 및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현대자동차의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됩니다. 당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은 주요 경영진이 협의하여 선정하며, 단기/중장기 내부 후보군 외에 외부영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 논의 및 후보군 추천 등을 통해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 및 겸직 제한

현대자동차는 국제적 표준을 적용한 엄격한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 및 직업의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상법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이사, 집행위원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타기업 겸직을 허용 받기 위해서는 겸직하려는 직무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 및 사외이사의 전문성

현대자동차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등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이사회에는 3명의 외국 국적 이사(호세 무뇨스, 도진명, 벤자민 탄)와 4명의 여성 이사(진은숙, 이지운, 최윤희, 김수이)가 있습니다.

심달훈 이사는 약 30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계 및 세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이며, 이지운 이사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지능형 교통 및 자율 무인 시스템 안정성 보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장승화 이사는 국제거래법 분야 전문가이며, 다양한 국제 기구 및 정부 기관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국제 통상 전문가입니다. 최윤희 이사 또한 법무 전문가로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등 노사관계 관련 풍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수이 이사는 오랜기간 CPPIB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축적한 경험과 폭넓은 안목을 보유한 재무/금융 전문가이며, 도진명 이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쉐컴에서 아시아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벤자민 탄 이사는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한곳인 GIC(싱가포르투자청)에서 오랜 기간 아시아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및 독립성 가이드라인

이사회 역량구성표(BSM)

역량 지표	사내이사					사외이사						
	정의선	호세 무뇨스	이동석	진은숙	이승조	심달훈	이지운	최윤희	장승화	김수이	도진명	벤자민 탄
리더십	●	●	●	●	●	●	●	●	●	●	●	●
회계/재무/경영	●	●	●	●	●	●			●	●	●	●
산업/기술	●	●	●	●	●		●			●	●	
법률/정책			●			●		●	●			
글로벌 역량	●	●			●	●	●		●	●	●	●
ESG	●	●	●	●	●			●	●	●	●	●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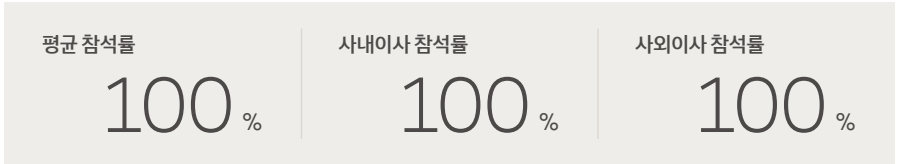
이사회 소집 및 개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소집 시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하며,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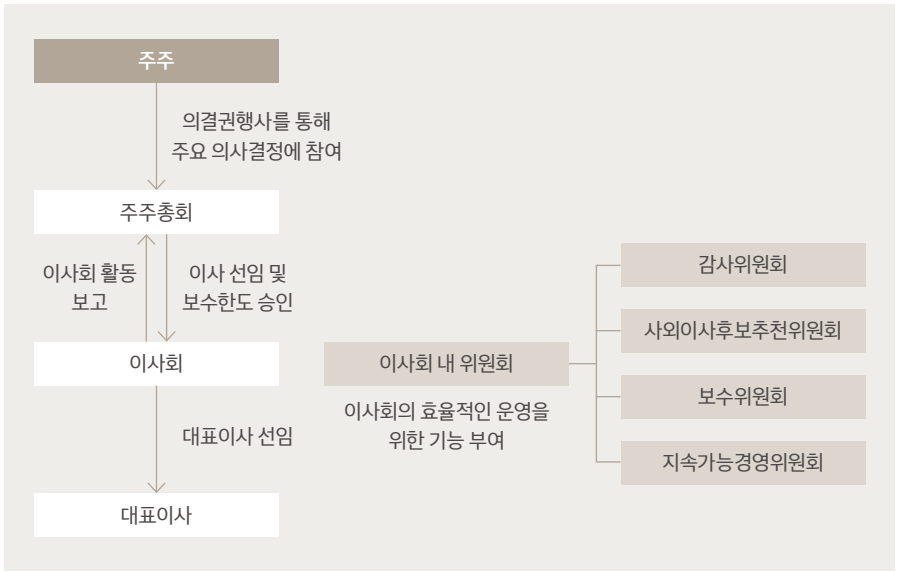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

2024년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의사결정 프로세스



2024년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내 용	가결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1.25	제5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제5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금융소비자보호현장 제정 및 관련 기준 개정의 건					
		준법지원 활동 내역 및 계획	보고	N/A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글로벌 차량 안전 현황	가결	100%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해외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계열회사와의 영업양수도 거래 승인의 건							
이사 경업(競業) 승인의 건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	N/A					
임시	2.16	대표이사 선임의 건	보고	100%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 경업(競業)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임원 주식보상제도 도입 승인의 건					
2차 정기	4.25	제57기 1분기 배당 승인의 건	보고	100%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해외법인 증자 참여 및 지분인수 승인의 건					
		해외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N/A
임시	6.4	해외법인 지급 보증 승인의 건	가결	100%			
		플랫폼 중개사업 추진 승인의 건					
		북미 친환경 물류 합작법인 설립 현황					
		HMI IPO 진행 상황					
		보고				N/A	
3차 정기	7.25	제57기 2분기 배당 승인의 건	가결	100%			
		해외법인 지분 거래 및 법인 증자 참여 승인의 건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N/A
		상용 수소차 충전 인프라 투자법인 유상증자 참여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100%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방향 승인의 건							
타법인 출자 지분 처분 승인의 건							
제57기 3분기 배당 승인의 건							
이사 경업(競業) 승인의 건							
해외주식예탁증서(GDR) 상장 폐지 승인의 건	보고	N/A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임시	11.27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해외법인 자금보충약정 승인의 건					
		승용 수소차 충전 인프라 투자법인 추가 투자 참여				보고	N/A
안전보건 주요 현안 발생							
임시	12.20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0%			
		해외 합작법인 증자 참여	보고	N/A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운영 및 활동 평가

현대자동차는 매년 사외이사에 의한 자체적인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정기적으로 독립된 제3자를 통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사회의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종산업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현대자동차 이사회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최종 제3자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회 신설

당사는 2025년 4월,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사외이사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대표로서 사외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사외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개진하며, 이를 통해 주주·이사회·경영진 간 더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대 선임 사외이사로는 심달훈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보수 지급

이사 보수지급 기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보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내이사는 직무, 직급, 리더십, 회사 기여도, 인재육성 등의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급여를 책정합니다. 상여는 회사 재무성과(매출, 영업이익 등)와 개인 성과 등을 종합하여 책정한 성과 인센티브를 기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별도 경영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CEO ¹⁾	이사회 ²⁾	사외이사	직원	CEO-직원 보수 비율
1인당 평균 보수액	3,399	1,402	120	124	27.4배

*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4년 사업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 1) CEO: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 기준
- 2)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 포함 기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보수는 직급 및 직책에 기반하여 책정되는 연봉과 당해 연도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연봉은 당사의 경영진 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직위, 직책(역할)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책정되며, 경영진 보상체계는 산업 환경, 사업 규모, 동종업계의 보상 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설정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개인의 성과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연봉의 0~20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대표이사의 성과는 재무실적과 KPI를 반영하고, 일반 경영진의 성과는 KPI와 MBO, 그리고 정책 이행도를 반영하여 5단계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KPI 평가에는 대내외 ESG 평가결과 및 ESG 중점 개선과제 수행 성과 등 지속가능경영 항목을 반영하여, ESG 경영 내재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성과연계 보수지급

구분	CEO	일반 경영진
연봉	CEO로서의 역할,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	경영진 보상 체계 기반, 직위, 역할 등 임원연봉 기준에 따라 개인별 책정
성과 인센티브	회사 재무실적 및 조직성과 합산 → 성과 인센티브 등급	조직성과/개인성과/정책지표 합산 → 성과 인센티브 등급
	재무실적 + KPI = 성과 인센티브 등급 매출액 30% 재무지표 35% S/A/B/C/D 손익 70% 사업전략지표 45% 지속경영지표 20% 공통지표 (가감점)	KPI + MBO + 정책 = 성과 인센티브 등급 부문별 KPI외연간 Culture S/A/B/C/D 주요 KPI* 성과목표 Survey 평가결과 - 전략목표 (조직문화 - 업무목표 진단) - 인재육성 목표 - 기타 등 * ESG 포함

이사회 책임 경영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위원의 선임과 구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선임되어야 하고,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명 이상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서 분리선출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상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5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지윤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서 분리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달훈 이사 및 김수이 이사는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오랜 기간 세무전문가로 재직한 심달훈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 감사 조직과는 다른 시각에서 당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감사위원회는 법무, 금융, 회계·재무, 미래기술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관련 주주총회 보고,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심달훈	이지윤	장승화	김수이	도진명
전문분야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글로벌·금융	글로벌·경영

비감사용역 승인

현대자동차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수행되고, 활동 중 확인된 중요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내역

사업연도	계약일	용역내용	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 원)
제57기	2022.06.23	한-캐나다 APA 갱신 자문 업무	2022.08.05~타결시까지	150
	2023.12.20	한-스페인 상호합의 및 쌍방 APA 지원	2023.12.20~타결시까지	180

보수위원회

보수위원회 구성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개정 이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 3명의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및 사내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최윤희	심달훈	장승화
전문분야	노동법·법무	재무·회계·세무	국제통상·법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관련 법규와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인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이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이지윤	도진명	벤자민 탄	호세 무뇨스
전문분야	미래·산업 기술	글로벌·경영	금융·주주권익 보호	경영전반 총괄

이사회 책임 경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투명경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기존에 4명으로 구성되었던 투명경영위원회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벤자민 탄 사외이사는 GIC(싱가포르투자청)에서 재직했던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현대자동차의 주주환원가치 및 자본배분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역할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정책·계획·주요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ESG 경영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을 넘어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주요 계획 및 이행 점검, 주주권익의 보호 등에 대해서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 투명성 강화 및 주주소통 확대 노력, 임직원 관련 윤리적 이슈 점검 등 내외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심달훈	이지운	장승화	최윤희
전문분야	재무·회계·세무	미래·산업 기술	국제통상·법무	노동법·법무

구분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성명	김수이	도진명	벤자민 탄	호세 무뇨스
전문분야	글로벌·금융	글로벌·경영	금융·주주권익 보호	경영전반 총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내 용	가결여부	찬성률	참석률
1차 정기	1.25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100%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2024년 사회공헌 주요활동 계획 승인의 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 증여 승인의 건			
		2023년 4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보고	N/A	
		2023년 하반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실적			
		2023년 4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3년 하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사항 및 추진계획			
		2023년 하반기 거버넌스 활동 내역			
임시	3.21	2024년 ESG 추진 방향 승인의 건	가결	100%	
		사업장 및 공급망 ESG 진단실사 결과	보고	N/A	
2차 정기	4.25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와의 거래(완성차 해상운송) 재승인의 건			
		2024년 1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보고	N/A	
		2024년 1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4년 1분기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내역			
		2024년 상반기 거버넌스 NDR 주요 내용			
임시	6.4	대규모 내부거래(포티투닷 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3차 정기	7.25	2024년 상반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보고	N/A	
		2024년 2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2024년 상반기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24년 2분기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내역			
		2024년 상반기 거버넌스 활동 내역			
		임시	8.22	중장기 전략 및 재무 목표	보고
임시	9.30	계열회사와의 수익증권 거래기간 변경 승인의 건	가결	100%	
4차 정기	10.24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계열회사와의 거래(브랜드 사용료) 승인의 건			
		계열회사와의 거래(계동사옥 임대) 승인의 건			
		2024년 3분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실적			
		2024년 3분기 사회공헌 활동 실적	보고	N/A	
		2024년 3분기 준법지원 활동내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내역			
		2024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진행 현황			
		신사업 진행 경과			
임시	11.27	계열회사와의 거래(완성차 해상운송) 승인의 건	가결	100%	
		계열회사와의 거래(기아와 자산매각) 승인의 건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현대차 탄소중립 전략 업데이트 승인의 건			

주주 친화 경영

현대자동차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NDR 등의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주식발행 현황

현대자동차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271,427,974주이며, 보통주 209,416,191주, 우선주 62,011,783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1주의 액면가액: 5,000원)이며,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50,000,000주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보통주 외에 3종의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선주에 대해서는 잔여재산 분배, 상환, 전환 등에 대한 권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우선주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 주식 수	발행 주식 수	가결 여부
보통주		450,000,000	209,416,191	의결권 있음
우선주	우선주	150,000,000	23,871,988	의결권 없음
	2 우선주		35,759,391	의결권 없음
	3 우선주		2,380,404	의결권 없음

*2024년 말 기준

주주 현황



주주총회 소집 및 통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기주주회의를,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회의를 소집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2020년부터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1주 1의결권 부여)

현대자동차의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종류와 수에 따라 그 소유 주식 1주당 1개의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및 위임

현대자동차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주주총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 용지를 주주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혹은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52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총회 시 안전별 찬반 주식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개별 안전 상정

현대자동차는 이사의 선임을 개별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2025년 3월)

부의 안건			가결 여부
재무제표 승인	제1호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제2-1호	사업목적 추가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분기배당 개선	원안대로 승인
	제2-3호	부칙 (2025.03.20)	원안대로 승인
이사 선임	제3-1-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수이)	원안대로 승인
	제3-1-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도진명)	원안대로 승인
	제3-1-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벤자민 탄)	원안대로 승인
	제3-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의선)	원안대로 승인
	제3-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진은숙)	원안대로 승인
	제3-2-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수이)	원안대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4-1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수이)	원안대로 승인
	제4-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도진명)	원안대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주주 친화 경영

주주환원

주주환원 정책

현대자동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신회 강화를 위해 2023년 4월 25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배당의 가시성 확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연결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기준 25% 이상의 배당성향(우선주 포함)을 달성하고,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 수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향후 3년간 1%씩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8일 CEO Investor Day에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이사회, 경영진의 강력한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반영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을 (TSR : 배당금 + 자사주 매입/소각) 기준 최소 35%를 달성하고, 3년 평균 ROE 11~12%를 지향하며, 연간 최소배당금 10,000원(분기배당 2,500원)과 3년간 최대 4조원의 자사주 매입 규모 설정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을 결의한 이사회 당일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배당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분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결산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5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고, 분기배당 또한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 57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주주환원 현황

사업연도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배당성향 연결 기준
			주당 배당금 (원)	총 배당금 (백만 원)	시가 배당률	
2024년	보통주	-	12,000	2,439,175	5.6%	25.1%
	우선주	-	12,050	262,442	7.9%	
	2 우선주	-	12,100	418,010	7.7%	
	3 우선주	-	12,050	28,213	7.9%	
2023년	보통주	-	11,400	2,320,806	4.7%	25.1%
	우선주	-	11,450	251,054	7.4%	
	2 우선주	-	11,500	399,821	7.3%	
	3 우선주	-	11,450	26,975	7.5%	
2022년	보통주	-	7,000	1,412,321	4.5%	24.9%
	우선주	-	7,050	154,579	8.8%	
	2 우선주	-	7,100	246,846	8.8%	
	3 우선주	-	7,050	16,609	9.1%	

주주와의 소통

투명한 정보공시

현대자동차의 공시는 당사 홈페이지 및 DART, KIND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총 196건의 공시를 제출하였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등의 자율공시 5건과 영업실적, 실적전망 등 공정공시 19건을 실시하여 회사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영문공시가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영문공시를 실시하여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공시 강화 노력에 힘입어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하는 2024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충실한 정보 제공, 경영 가이던스 제시,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IR 홈페이지 개편

당사 IR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목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3년말 IR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IR 홈페이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설명회 개최

현대자동차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연간, 1분기, 상반기, 3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기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경영실적발표부터 모든 주주들의 IR 접근성 제고를 위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는 웹캐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중장기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최고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업설명회 정보 및 일정

Governance Non-Deal Roadshow

현대자동차는 매년 Governance NDR을 시행하여,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가 직접 당사 거버넌스 개선 활동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목표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ESG 경영 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업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EO Investor Day

2024년 8월, 현대자동차는 CEO Investor Day를 개최하여 당사의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당사의 2030 중장기 전략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자동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인 ‘현대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통해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사는 EV 신공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비용 51.6조원을 포함하여 향후 10년 간 총 120.5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대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적용 차종을 기존 7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II)을 확대 적용하며, 북미와 중국에서 EREV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2030년까지 경제형 EV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총 21개 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차량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SDV 체계로 전환하고 SW 중심 전환을 통해 SW 플랫폼 기반 AAM, 로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EV 에너지 영역에서 당사 EV 고객의 충전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EV 이용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사 역량을 결집하여 수소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소 가치 사슬에 걸쳐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 사회의 조기 실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윤리·준법 경영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을 확산하고 공정거래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이행의 총괄 감독과 더불어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 및 실천규범 개정 관련 의결은 2021년 3월 확대 개편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준법지원 온라인 시스템, 자가점검, 가이드라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사적으로 전파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확산

현대자동차그룹 5대 윤리헌장

현대자동차는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윤리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5대 윤리경영 헌장은 임직원이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5대 윤리헌장

-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변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경영 관련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부패 및 뇌물, 차별, 정보 비밀 유지, 이해관계 상충, 독점 금지 및 반경쟁적 관행, 자금세탁 및 내부거래, 환경, 보건 및 안전,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반부패/뇌물금지 정책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은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부패 및 뇌물 관행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구성원이 윤리·도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형태의 뇌물 및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급행료를 근절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자선기부 및 후원에 대한 내부 집행기준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및 뇌물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즉각 필요 조치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반부패/뇌물정책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부패 및 뇌물 수수 등) 위반 예방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과 반부패/뇌물정책에 리베이트를 포함한 뇌물 및 관행적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 및 협력사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신입 임원, 신규·경력 입사자, 부임 전 주재원 등 새로이 준법교육이 필요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시에 윤리규범(반부패/뇌물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들에게 반부패/뇌물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반부패/뇌물 관련 교육이 총 26회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준법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반부패/뇌물 관련 수시 법률자문을 진행함으로써, 임직원들은 업무 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이로써 반부패/뇌물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준법지원상담센터(시스템, 전화, 이메일) 운영을 통하여 임직원 윤리규범 위반 리스크를 제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기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임직원 윤리규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부패 및 뇌물 수수 등) 위반 신고 대응 및 위반사항 처리 절차

현대자동차는 윤리·준법 경영 확산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내 준법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 업무를 지원하고 법 위반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감사실은 사이버 감사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전,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を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및 책임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시행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채널인 사이버감사실, One Click HR, 준법지원상담센터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이관하거나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시정 또는 징계조치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현대자동차 직장윤리규정 제 11조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에 의거하여, 윤리규범 위반자는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규범 위반 사실을 접수한 부서는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며, 인사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한 후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력업체가 연루되었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변상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윤리규범 (부패 및 뇌물수수 등) 신고 대응 및 위반사항 처리 프로세스

- 제보 접수 : 온라인 (사이버 감사실), 전화 등
※ 제보자 보호 준칙 준수
- 사전 조사 : 제보 내용의 구체성 확인 및 근거 확보
※ 사전 조사계획 보고 및 승인 후 조사 착수
- 감사 : 대상자, 유관부서, 협력업체 등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 조치 의뢰 :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징계 조치 의뢰 내부 보고 후 유관 부문에 의견 전달

주요 제보 채널

	사이버 감사실 현대자동차 사이버 감사실		전화 제보 +82-2-3464-3500
	팩스 +82-2-3464-8813		서신 접수 현대자동차그룹 감사실

윤리·준법 경영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현대자동차는 2024년 부패 및 뇌물수수, 차별 및 괴롭힘, 고객정보, 이해관계 상충, 자금세탁, 내부자거래 관련 총 8건에 대해 징계(해고/정직/감봉/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구분	징계 건수 (건)
부패 또는 뇌물 수수	5
차별 및 괴롭힘	3
고객정보	0
이해관계 상충	0
자금세탁 또는 내부자거래	0

제보자 보호

현대자동차는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과 직장윤리규정 내규에 임직원 윤리 및 준법 관련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로는 내부신고자 및 관련 정보 비밀 유지, 불이익 처분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윤리규범 위반 행위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을 시도하거나 그 밖의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장 윤리규정 3장 9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및 참고인에게 보복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안내하고 내부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조치

1. 비밀 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2. 신분 보장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
3. 책임 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임직원 성과관리 및 승진 현대자동차는 직원 역량평가에 직장 내 윤리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평가 요소에는 인재존중, 규범준수가 포함되며, 리더 대상 역량평가에는 원칙과 소신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직원 승진 심의 시 윤리/준법 관련 중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승진 공통 심의항목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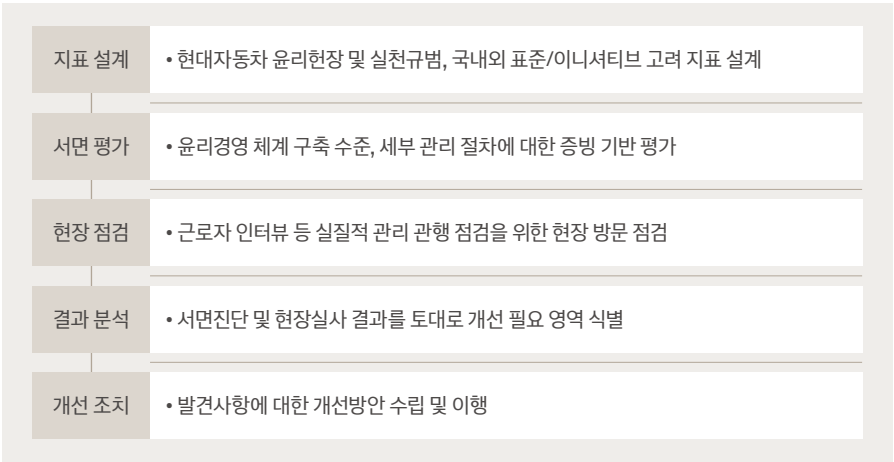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 현대자동차는 매년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임직원의 행동강령 내재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윤리경영 실사

현대자동차는 본사, 연구소, 공장 등 국내 사업장과, 유럽, 북미, 중남미, 인도, 중국 등 해외 권역본부, 연구소, 공장을 대상으로 윤리 항목을 포함한 ESG 리스크 진단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증빙자료 기반의 서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제3자 전문가에 의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국내외 표준, 산업 이니셔티브 평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윤리경영 평가 지표를 설계하였습니다. 윤리 원칙 및 규정 수립, 교육 및 전파, 조직 R&R 구성 현황 등 기본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비롯하여, 비윤리행위 제보채널 및 처리 절차, 제보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관리 체계 및 절차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례를 공유하여 타 사업장의 관리수준 제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윤리경영 실사 절차



준법경영·준법지원제도

준법경영

준법경영은 현대자동차가 경영 및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규범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경영을 위하여 2012년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상법상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준법통제 규정·정책 준법통제기준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을 근거로 준법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을 두어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반부패/뇌물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을 두어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조직 현대자동차는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준법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역 및 유효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임명하여 이들이 소속 부서의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반부패, 개인정보 등 다양한 법 영역에 관해 준법자가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스스로 업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리스크를 각 부서에 안내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CP아카데미 교육 주제와 연계하여 준법자가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1~2분기에는 그린워싱 및 경영간섭 관련한 부서별 준법자가점검을 시행하여 대상 부서 100% 참여율을 달성하였으며, 3~4분기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주제로 전제 임원 및 책임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준법자가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고위험부서 (구매/영업/재경) 대상으로 임직원 준법자가점검을 별도 시행하는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자가점검 문항을 개발하여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경영

준법경영을 위한 정보 제공

준법가이드라인 배포 현대자동차는 업무영역별 약 40여 종의 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를 두 차례 개정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였고,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워싱 부록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리플렛(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엑기스)’를 추가로 배포하여,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를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법문화 확산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식 및 콘텐츠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에게 법률 자문, 계약 검토, 준법 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영역별 표준계약서(국문 계약 32개, 영문 계약 20개)를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임직원 참여 준법 행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임직원들이 준법/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전개의 일환으로,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법인에 현지화된 개인정보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점검도 지원하였습니다.

준법통제체제 유효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법적 위험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설계 및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3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대자동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파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지침을 제작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공정거래 관리·감독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실적 및 차년도 계획을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및 정기 소식지 발송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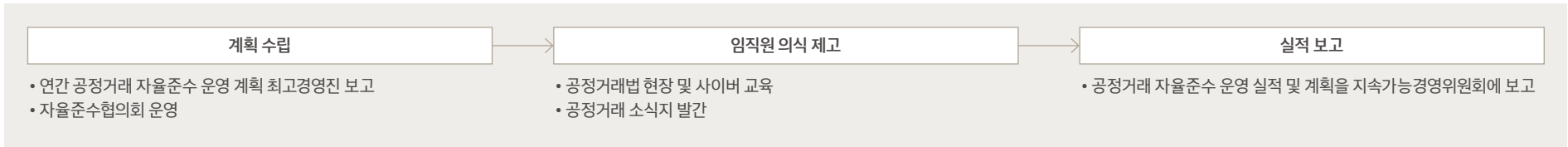
공정거래 교육 실시

현대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의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반직·연구직·법무직 등 전 직원 대상 거래상지위남용(갑질) 온라인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자율준수담당자, 주제별 유관부서 대상 ‘공정거래 CP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업무에 특화된 공정거래 및 준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지원조직과 자율준수관리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센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에게 준법뉴스레터를 격월로 발송하며, 기존 줄글 형식에서 10장 내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대폭 개선하는 등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연 3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현황

연도	교육 횟수 (회)	참여 인원 (명)
2024년	11	28,341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 운영지침 (제 7조 교육실시) 에 따라 교육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에 포함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험부서, 임원 및 경영진,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험부서는 업무상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서 (구매, 영업, 재경 등)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구매본부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중 기술자료 관련 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온라인 동시 중계), 약 395명의 구매본부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정거래 CP(Compliance Program) 운영 효과성 평가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법규 위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자 매년 2회 이상 공정거래 CP 운영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효과성 평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023년에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이래로 평가 주체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제3자 기관의 평가의견을 참고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와 같은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ESG 및 경영 리스크 증대로 인한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였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선도업체로 도약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23년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을 신설하였으며 핵심 리스크 지표와 연동된 성과 평가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거버넌스

현대자동차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이사회, 경영진, 임직원들이 리스크 식별·평가·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는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전사 경영전략, 전기차 확대 전략 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미래 리스크 요인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영역에서 리스크를 사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사 ESG 리스크 대응과제 추진방안과 이행 현황도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재무실적에 대한 공시 요구에 대응하여 EU 택소노미 데이터 산출 및 기후변화 리스크 재무 영향 분석 프로세스 구축, 신규 투자 시 ESG리스크 점검 강화 등 7개 리스크 대응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과제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도 지속가능위원회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전사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Strategy & Governance 담당 중역이 전사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월 단위로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를 소집하여 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2023년 신설된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전사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본부 내 선정된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 중심으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조직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은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효과성,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는 전사적 차원 외에도 본부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별(연구개발-구매-생산-판매)로 구성된 본부 내 기획팀에서 리스크 담당자가 선정되어서 해당 본부 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의 경우 미주, 유럽, 인도 및 아시아, 중국 등 권역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 내 기획담당 조직에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사슬별 사업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리스크 관련 조직에는 법규 및 소송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무실, 재무·노무·품질 등을 관리하는 기능별 전문조직, 거시·미시 시장 리스크 분석을 담당하는 경영연구원이 있으며, 감사위원회 내 감사실에서는 부패, 불공정 거래 등 리스크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부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직원 리스크 식별·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확인된 리스크는 주·월·상시 리스크 및 업무 점검회의를 기반으로 식별·점검하며, 보고 및 선제 대응하는 순서로 관리합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경영

리스크 대응 방향성

현대자동차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안전, 환경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경영 강화, 제품 및 사업구조의 전동화 전환,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안전경영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리스크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는 2024년 새롭게 수립된 자사의 경영 전략인 ‘2030 전략’과 현대자동차만의 업무 방식인 ‘현대 웨이(Hyundai Way)’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30 전략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대자동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이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30 전략을 기반으로 미래 리스크와 기회요인에 기민한 대응을 통해 완성차 제조를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로의 확장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수소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사업자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현대 웨이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대응하는 현대자동차만의 업무 방식으로 5개의 방향성과 10가지 방식(Way)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글로벌 지향, 소통과 협력, 인재 존중의 5가지 방향성은 리스크 및 기회요인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 집요함, 회복 탄력성, 데이터 기반 사고 등 10개의 방식은 임직원들이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대응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점검 체계

현대자동차는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전담조직인 BRM(Business Risk Management)실이 리스크를 점검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현업 대응체계 및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 체계가 미흡하거나 부재할 경우, 리스크 대응 내부 조직간의 R&R를 명확하게 하여 리스크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생가능성이 높고 재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대 리스크를 선별하여 CEO를 포함한 C레벨 경영진으로 구성된 C-level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Meeting)에서 매달(연간 12회) 점검하고 리스크로 인한 영향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하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업활동 제약, 재무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리스크 사전 예방과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주요 ESG 리스크와 당사 대응 과제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받고 있으며, 대응 과제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은 부패,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내부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최소 연간 2회 이상 감사하고 있는 등 효과적인 내부 리스크 점검 및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점검·감사 체계 외에 내부 리스크 대응 전략 및 프로세스에 대해 최소 연간 2회 이상 컨설팅 기관을 통한 외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지표 연동 보상 체계

CEO 등 C레벨의 경영진들의 KPI에 글로벌 손익 관리 등의 재무 리스크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점유율, 신차 품질문제,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 여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KPI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성과 평가가 시행되며, 그 결과는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수 체계와 연동됩니다.

특히 CFO의 경우 글로벌 손익 및 매출액, 현금 유동성 등 재무적 리스크 지표와 더불어 시장 점유율과 같은 시장 리스크 지표, 전기차 판매 확대, 가격 경쟁력(원가 절감), 추가 및 ESG 평가 등 비재무적 리스크 지표들도 CFO의 KPI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지역별 플릿 평균 탄소 배출량 또는 연비규제 준수, 미래사업 관련 인재 확보,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차량 리콜 등 주요 리스크 지표들이 각 유관 본부의 KPI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본부의 성과 평가는 KPI 기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 평가결과는 본부장뿐 아니라 사업 본부 임원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각 본부의 팀장 및 팀원의 성과평가 목표 입력 시 KPI 지표는 임원의 목표와 연계되어 해당 본부 임직원의 성과 및 보상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승인 시 리스크 점검

현대자동차는 제품개발 및 승인 단계별 리스크 기준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본 성능 점검부터 실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각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해당 차종에 대한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점검 기준은 크게 연구소와 생산공장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측면에서는 ‘제품 기능 오작동 리스크 확인 및 제거를 위한 연구소 내 Proto 차량 제작 및 검수’와 ‘차량 양산 가상환경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되며, 생산공장 측면에서는 ‘실제 공장 내 양산 환경 조건 상에서 부품 조립 문제 발생 리스크 확인 및 제거’, ‘대량생산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확인 및 제거’로 구분됩니다. 4가지 리스크 기준 점검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 차량 양산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사 리스크 교육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증진 및 리스크 관리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사업 현황, ESG 리스크, 다양성, 신사업 관련 리스크 등의 주제로 세미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현대자동차 리스크 대응체계 및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 현대자동차그룹 수소 비전과 수소 비즈니스 전략, ESG정보공시 규제 심화에 따른 기업 차원 대응 방안,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제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에 수립한 현대자동차의 미래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전사 대응 전략인 ‘2030 전략’과 현대자동차만의 업무 방식인 ‘현대 웨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대응 방향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워크숍, 현대웨이 전사 모범사례 임직원 공유, 현대 웨이 우수 사원(Hyundai Hero) 포상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기반으로 2030 전략과 현대 웨이를 국내외 임직원들에게 전파 및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사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롭게 부각하는 ESG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서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ESG 영역에서 최근 부각되어 있는 순환경제와 공정한 전환 이슈와 연계된 리스크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아울러 최신 주요 리스크 동향을 다룬 ‘Weekly B.I.Briefing(리스크 동향 보고서)’ 등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하는 등 리스크 관리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현황

리스크 선호도 결정 프로세스

현대자동차는 ‘리스크 식별 - 영향(중요도)/발생가능성 분석 - 우선순위 설정 - 리스크 선호도 결정-대응 추진’의 프로세스를 통해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Strategy & Governance 내 BRM실의 자체 리스크 센싱 체계에서 식별된 주요 리스크들에 대해 재무적, 사업적 영향을 기반으로 영향(중요도) 및 발생 가능성을 분석/평가합니다.

이러한 분석/평가 결과 기반으로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1) 현대자동차 비전과 목표, 미래 경영전략(2030 전략)과 부합성, 2) 시장 내 입지 및 재무적 능력을 포함한 리스크 감내 능력, 3) 잠재적 손실 또는 이득 규모 등의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리스크 선호도를 결정합니다.

규제 리스크

자동차 회사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물론, 제품과 관련된 환경·안전·품질·인증 등에 있어 다양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사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플릿 평균 CO₂ 배출규제 및 기업 평균 연비규제의 경우, 해당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2023년 승용차 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55% 감축, 2035년에는 100% 감축하여 EU 내 차량 CO₂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규제 목표를 확정한 바 있으며, 자동차업체들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국의 CO₂ 배출규제 또는 연비규제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라인업과 판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단기·중장기 판매물량 계획 시 전기차 물량을 포함한 규제 대응 물량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지경학적 리스크

2017년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갈등이 현대자동차 중국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와 같이, 주요국들의 정치·정책 변화와 연관된 리스크는 사업 활동과 재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2025년 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유럽 등에 보편적 관세 부과, 자동차, 철강 등에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법(IRA) 철회와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현대자동차 사업 활동과 재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과 정치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PCO, Policy Coordination Office)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정치·정책 리스크를 파악하고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의 생산 지연이 장기화된 사태와 같이 특정 부품의 수급불안이 전체 생산을 지연시키는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가 상승을 초래하면서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광물 소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약 6배 많은 전기차의 경우, 최근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면서 광물 수급 부족 등과 같이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광산 개발 증가로 인한 환경 및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 있는 광물 소싱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략 소재와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에 대한 내재화 추진, 전략 소재에 대한 직접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소재 및 부품 조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동 상시 모니터링과 손익 영향 자동 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익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자동차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소비재로 거시 경제적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품입니다. COVID-19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양적완화와 공급망 붕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물가급등을 초래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이 고물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긴축 정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주요국의 경기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거시경제 및 산업 리스크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전문 조직(HMG 경영연구원)을 중심으로 신차 수요와 연관성이 높은 경기선행지표를 기반으로 경기순환주기와 신차 중장기 수요를 예측·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유럽 경기침체 현실화, 중국 경기불안 심화 등의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생산·판매 조정, 새로운 대체시장 발굴, 신모델 출시 강화 등을 통해 거시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무 리스크

주요 국가들의 금리 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이자비용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달러 강세로 인해 주요국들의 화폐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이익의 극대화 및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리스크들에 대한 민감도, 스트레스 분석을 통해 시장 리스크(환·이자·가격),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파생상품 리스크 등이 현대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식별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여 리스크 회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별 단기·중장기 차입금에 대한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차입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 리스크 관련해서는 원화 절상 및 절하 시나리오별로 환 리스크를 파악하여 환헤지 확대, 환손실 만회 방안 등의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경영

주요 리스크 노출도 및 대응 현황

구분		주요 리스크 내용	리스크 노출도 평가		대응 조치
			발생 가능성 ¹⁾	크기 ²⁾	
비재무 리스크	규제 리스크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제품과 사업장 관련 규제 리스크	중	상	차량 CO ₂ 규제 대응하여 사업계획에 규제대응 물량 반영 등
	지정· 지경학적 리스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	상	상	현지 생산비중 증대 및 자급자족적 현지 생산체계 구축 등
	거시 경제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리스크	중	중	경기로 인한 수요변화 예측력 강화, 글로벌 경제 시나리오 분석 등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조달비 상승 리스크, 공급 지연·중단 리스크	중	상	전략 소재와 핵심 부품에 대한 적정 재고 확보, 핵심 부품 내재화 등
	운영 리스크	제품·기술개발, 생산, 판매 등과 연관된 리스크	중	하	각 본부별 기획부문에서 운영 리스크 파악/분석/대응
재무 리스크	환 리스크	주요 외화 시세 변동으로 인한 환 리스크	중	중	원화 절상·절하 시나리오별 분석 통해 환 리스크 관리 등
	금리 리스크	금리정책 변화로 인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변동	중	중	여유 유동성 보유법인 위주 차입 상환 등 금리상승 리스크 대응
	유동성 리스크	현금 유동성 부족 리스크	하	중	장단기 자금계획 정교화, 자금조달 체계 구축 등

1) 발생가능성((Likelihood) 평가 기준: 상(High) 50% 이상, 중(Medium) 25~50%, 하(Low) 25% 미만,
2) 크기(Magnitude) 평가 기준:
양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이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수준의 영향을 주는지 여부
질적 평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전략 및 의사결정을 수반시키는지 여부

잠재 리스크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한 차량 탄소 규제 리스크 증가

RISK CONTEXT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3년 말부터 일부 국가들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 높은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인프라, 배터리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캐즘을 겪고 있습니다. 캐즘이란 기술혁신 초기단계에서 시장이 급성장하다가 일정 시점에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중국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시장을 주도하던 EU 전기차시장은 캐즘 현상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에 따르면, EU 전기차 시장은 ‘24년에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고, 전기차의 전체 시장 점유율도 ‘23년 14.6%에서 ‘24년 13.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EU 내 전기차 수요 감소는 자동차업체들의 EU 차량 탄소(CO₂) 규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U는 승용차 CO₂ 배출량을 ‘25년 ’21년 대비 15% 감축, ‘30년 55% 감축에 이어 ‘35년 100% 감축하는 규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30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업체는 EU 판매량의 80%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합니다. 향후 자동차업체들이 EU에서 최대 160억 유로 규모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4년 기준 EU에서 약 60.9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 중 전기차는 6.6만 대로 전체 판매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은 중단기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량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차량 탄소 규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캐즘 현상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둔화를 극복하고 향후 승용차 모델의 평균 CO₂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수요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형(캐스퍼 EV) 전기차를 포함한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 등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외부 충전이 필요 없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연기관 차종의 평균 CO₂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 확대와 더불어 CO₂ 배출이 많은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로 준중형 및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CO₂ 배출이 많은 대형 및 럭셔리 차급으로 확대하여 기존 7개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향후 14개 차종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판매차량 평균 CO₂ 배출량 감축 폭을 둔화시키고 있는 제네시스의 경우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제노동금지 규제 확산에 따른 리스크 증가



RISK CONTEXT

아동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4년 3월, EU 이사회와 의회는 공급망을 포함한 제품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과 결부된 제품에 대한 EU 역내 유통과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인 강제노동금지법(AFLR, Anti-Forced Labor Regulation) 시행에 잠정 합의했으며, 2024년 12월 EU집행위원회는 해당 법규를 공식적으로 발효하였습니다. ‘27년말부터 법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7년말 법규 시행 시 제품 업스트림 제조과정에서 강제노동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제품은 기업이 소명할 때까지 EU 판매 및 수입 금지되며, 최종적으로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이 판정될 경우 기업 자체 비용으로 전량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강제노동방지법을 미준수할 경우, EU 역내 판매·수출 중단 리스크는 물론 강제노동 의심 또는 판정 부품의 수입 중단으로 인한 EU 현지공장 생산 지연 및 중단 리스크 등이 우려됩니다.

현대자동차는 ‘24년 기준 EU에서 60.9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EU판매차량(현지 생산물량과 국내 수출물량)이 EU 강제노동금지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2년부터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시행 중인 미국에서는 일부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일부 부품이 강제노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업체의 차량 수 천대의 통관 절차가 보류되었습니다.

HYUNDAI'S APPROACH

현대자동차는 EU, 미국, 캐나다 등으로 확산 및 강화되는 강제노동금지 규제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및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함으로써, 인권 존중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부터 법무실과 구매본부가 협력하여 외부 전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협력사 리스크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스크리닝을 통해 위험이 식별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정기 모니터링, 추가 실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공급망 내 인권 위험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1차 및 주요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서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고위험 협력사를 선정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사 사업장 및 자회사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 안전 보건, 윤리 경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인권·환경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 및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 의무

조세 전략

현대자동차는 세무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경영의 선제 조건이며,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 확보, 주주의 이익 극대화 및 국가 재정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관청의 공평 과세 원칙을 존중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현지 과세 당국이 제정한 조세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 조세 리스크 관리 정책의 핵심은 ‘엄격한 법규 준수’입니다. 당사는 투명한 조세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과세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사실관계 소명 및 증빙 제공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실체가 없는 조세구조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 및 조세피난처 국가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창출된 가치를 낮은 세금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전에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 세법 차이 및 조세 제정 의도를 파악하고 분쟁 소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세당국 간 과세권 경쟁으로 인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 정상가격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조세 보고¹⁾



국가	1	2	3	4	5	6	7	8	9	10
국가	한국	미국	미국	독일	체코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법인명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HMC)	2 미국판매법인 (HMA)	3 미국생산법인 (HMMA)	4 유럽권역본부 (HME)	5 체코생산법인 (HMMC)	6 터키생산·판매법인 (HMTR)	7 인도권역본부 (HMI)	8 중남미권역본부 (HMCSA)	9 인도네시아생산 법인(HMMI)	10 캐나다판매법인 (HACC)
주요 활동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마케팅 및 완성차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완성차 및 부품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완성차 제조 및 판매
총 임직원 수 (명)	75,819	1,282 ²⁾	4,305	283	2,823	2,446	10,190	3,249	1,855	278
매출액 (백만 원)	79,060,777	46,315,068	15,473,386	16,288,589	11,056,791	5,204,563	11,090,993	3,948,594	1,887,675	6,375,399
세전이익 (백만 원)	15,283,857	2,004,153	386,624	48,593	745,568	311,424	1,249,132	107,168	67,209	264,274
미지급법인세 (백만 원)	1,659,840	25,618	(2,779) ³⁾	22,287	5,982	0	0	0	0	26,235
법인세비용 (백만 원)	3,043,322	458,228	71,863	24,326	175,324	65,530	323,439	26,265	783	70,178

1) 해당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 기준(내부거래 제거 전)이며, 전세계 주요 생산법인을 포함함(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 112%, 세전이익의 115% 수준)
2) 미국판매법인(HMA)은 북미권역본부(HMNA), 제네시스미국판매법인(GMNA)과 동일한 법인격을 공유하며, HMA의 임직원 수에는 HMNA 및 GMNA 인원이 포함됨
3) 선제 인식된 세액 대비 실제 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예상분으로 미지급법인세 마이너스 발생함